

#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신라대학교 가족학과  
전임강사 전 영 주

Dep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  
Assistant Professor : Young-Ju Ch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I. 결론       |
| III. 가설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 Abstract >

This study tests the path model which examines how the variables of past and present family dynamics, school adjustment, filed life events affect the adolescents' depression which in turn influencing their suicidal ideation. In the path model,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in childhood, maladjustment history of the family (e.g., alcohol, divorce), presen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adjustment, filed life events were used, whereas the adolescent depression was used as the mediated variable. The endogenous variable was th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were 635 adolescents who were 1st and 2nd grade of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nd Busan. Using SPSS for Windows, the path analysis was done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separately, since female adolescents were found to report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an were male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were as followings. First, for both the male and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suicidal ideation. Also, school adjustment strongly affected the adolescents' depression as well as their suicidal ideation. Meanwhile, filed life events indirectly influenced the suicidal ideation only through the depression. Second, for the male adolescents,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in childhood affected both th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hil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irectly affected the suicidal ideation. Third, for the female adolescents,

maladjustment family history and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did not affect their depression, but the suicidal ideation. Meanwhi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femal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ir depression. In conclusion, discussion on different path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was provided.

**주제어(Key Words):** 우울증(depression), 청소년 자살구상(adolescent suicidal ideation), 가족환경(family environment), 학교환경(school environment), 경로분석모델(path model)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전 연령층을 통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청소년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7). 청소년 자살은 교통사고에 이어 15-19세 청소년 사망의 두번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청소년백서, 1997), 특히 90년대 들어 매년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치명적인 자살율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 최근의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종종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 이숙현, 2000).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1997)의 중고생 6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평소 자살충동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열등감(19.8%)', '학업성적 저하(15.7%)', '부모의 잔소리(15.6%)',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10.2%)' 등이 보고되었다. 자살충동을 느낄 때 응답자의 51.9%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는다고 답해 심리적 위기시 청소년의 지원체계가 부재함을 암시하였다(조선일보, 1998. 1. 6).

한편, 우울증은 자살구상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자살구상의 정도는 궁극적인 자살 행위의 가장 좋은 예측치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전형적인 증상인 무력감 외에도 극도의 피곤함, 집중의 어려움, 신체발달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의 신호를 보인다. 청소년의 우울증은 많은 경우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가면'으로 위장되기도 하는데, 위장된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 중 50-70%가 우울증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 종종 자가치료(self-medicate)

를 시도한다고 한다(Allberg & Chu, 1990).

자살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증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의 20-30% 가량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여자 청소년은 우울증의 정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1.8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조선일보, 1997, 5, 8).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행동의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스트레스나 학교 성적의 비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동아일보, 1997. 9. 29), 학우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내폭력 등의 학교 부적응도 청소년 자살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자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Holinger & Offer, 1981). Wodarski와 Harris(1987)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의 신체적 질병,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 내의 의사소통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가진 가족이 적절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다른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이유로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첫째, 어린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금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은 실제 건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되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자살 행동(suicidal behavior)의 정의에 대한 연구자간의 견해 차 때문에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어떤 연구에서는 성공한 자살만을 다루는가 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자살 미수나 자살 구상이나 자살 위협을 정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셋째, 청소년 자살 연구는 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 의

료기관 등을 통한 공식적인 통계치 보고에 의존하여 왔으며, 가족기능성이나 학교적응 등의 1차적 환경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살 동기와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은 소홀히해왔다.

청소년 문제의 증가와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심리적 경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그나마 수행된 관련 설문조사는 탐색적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살구상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살구상(suicidal ideation)이란 자살충동(예: "죽고싶다") 및 인지적, 구체적인 자살행동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서, 자살구상은 실제로 성공한 자살 및 자살미수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에서 자살구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변인들, 즉, 가족역동과 학교적응, 누적된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둘째, 이 변인들이 우울증을 매개로 하여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단,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유의한 성차가 있다면 남녀 청소년 경로모형을 분리하여 검증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 1. 현대사회와 자살

우리사회는 지난 30년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사회,경제, 문화 각 분야의 발전과 대중매체의 발달,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졌고,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해체가 초래되었으며, 그에 따른 의식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환경에서 개인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특히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살행동을 포함한 각종 부적응과 발달과업 성취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

2000).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97)은 자살의 사회적 유형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성 자살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현대 문명의 중심지에서의 아노미성 자살에 주목하였다. 그는 아노미성 자살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변영에 의해서도 촉진됨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가 초래한 빈곤이나 변영이 가져온 부는 자살의 원인이 아니며, 재정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한 집합적 질서의 붕괴가 생존을 위한 제적응에 문제를 일으켜 자살을 자극한다고 하였다(김충선, 1997). 따라서 뒤르켐은 오늘날의 자살경향을 병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문명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이나 예술, 산업의 발전 자체가 자살증가를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사회조직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심각한 변동을 통해 사회를 견장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살증가가 일상적인 질병이 되었다고 말한다(김충선, 1997).

사회적 통합과 관련하여 응집력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살율이 낮으며, 자살은 종교나 정치 사회의 통합 정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통합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김충선, 1997, 재인용). 아울러 연구자들도 이혼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살율이 높음을 지적하였다(Stack, 1980).

사회적 상황이 전시나 비상시일 때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므로 자살율이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개인의 운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가 부여되며,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의문을 가질 여유가 없으므로 자살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사회계층으로 볼 때 전문직 지식인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가톨릭 교도들의 자살율이 가장 낮다(김충선, 1997).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자살행동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자살 기도가 월등히 많으나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우상(1991)의 1980-1991년간의 소아 청소년 자살에 대한 센서스 연구에 의하면, 자살 성

공의 남녀 비율은 2:1로서 남성이 많았다. 이는 남성이 더 치명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기 연령군에 접어들수록 남성 자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살을 증가는 범문화적인 현상이며 아동의 자살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김충선, 1997; 윤우상, 1991). 그러나 자살 구상과 자살 미수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운삼, 1997). Murphy(1999)는 여성의 자살 시도는 실제로 죽으려는 의도보다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살아 남으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중앙일보, 1999). 청소년 자살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이 가장 많으며 성별 자살의 호발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7세가 가장 많다(윤우상, 1991).

## 2. 가족 및 학교환경과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기는 신경세포의 비약적 분화와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청소년기 우울증은 청소년의 상당수에게 보이는 흔한 심리문제로 알려져있다(이민창 외, 1992). 일반적으로 학령기에는 남아에게 우울증이 높지만, 십대중반 이후에는 여자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고 한다(박금순, 1995; 류기영, 1999).

청소년의 우울증과 관련된 변인으로 일반적으로 가족환경과 학교환경의 요인들이 지적되었다(최규련, 1999; 최외선 외, 1997). 우선, 가족관련 요인으로서는, 청소년이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증이 낮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우울 정도는 청소년의 우울증과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최규련, 1999). Strivers(1988)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우울증이 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금순(1995)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일수록 비동거 집단보다 우울증이 적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잘못된 양육방법(어머니의 과보호)을 가진 가족집단에서 청소년의 우울증이 높으며,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청소년 자녀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류기영, 1999, 최외선 외, 1997). 이민창과 그의

동료들(1992)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우울증간에 상당히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즉 낮은 가족기능은 가족 내 소외감을 유발해 우울증을 초래한다고 추측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이미리, 1995).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에서 이미리(1996)는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학교공부에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훨씬 적은 여가 시간을 갖음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금순(1995)은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 갖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선생님의 꾸중, 친구관계 등은 모두 청소년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다(최외선 외, 1997).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사회성이 낮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고등학생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불행함과 외로움을 더 느낀다(도현심, 1998). 최규련(1999)도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우울증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단일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증을 유발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누적된 생활사건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1995).

## 3. 가족, 학교환경 및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살

청소년 자살과 관련있는 직접적인 환경 요인으로서는 가족과 학교를 지적할 수 있다. 가족과 학교 환경은 단일 스트레스로서, 또한 누적된 스트레스로서 청소년의 자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요인의 경우, 현재의 가족관계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태도 및 가족사 등이 유의한 요인임을 암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먼저 청소년 자살을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이 자살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최태산(1997)의 비행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과 통제 및 훈육의 정당성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Strang과 Olofsky(1990)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동료집단과의 불안정한 애착보다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더 강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전용철, 1992, 재인용).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자살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요소로, 부모의 냉랭함, 거부적인 태도,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태도, 체벌 등이 그것이다(Wright, 1985).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켜 자살이라는 치명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자살한 청소년들의 가족사(family history)를 추적 연구한 Burger(1987)에 의하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불행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족한 결혼에 대해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였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못미친 자신에 대하여 자기체벌의 형태로 자살을 선택하였다.

부적응 가족력과 관련하여 가족폭력의 경험이나, 부모가 정신과적 질병이나 만성적인 우울증을 가진 경우, 부모가 자살이나 알콜중독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경은과 장덕희(2000)의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었던 청소년 집단은 모두 자긍심에 문제가 있었으며, 자해를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부모의 언어적 폭력도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wright, 1985). 청소년은 종종 부모의 학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학대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와 자기증오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 한편, Murphy와 Wetzel(1982)은 자살미수 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45%가 가족 중에 자살을 했거나 자살미수에 그친 가족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가족에서

자살은 흔히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고 한다(김충선, 1997). 이러한 이유로 자살이 유전적일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유전보다는 오히려 강박관념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충선, 1997). Friedman, Corn, Hurt, Fibel, Schulick와 Sweiski(1984)은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와의 정서적 개입, 의사소통, 애정표현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나 아버지의 알콜중독은 부모의 부정적 자아상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Tishler & Mckenry, 1982; Wright, 1985).

학교 환경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교사와의 관계나 학업성취, 또래와의 관계 등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것은 장래의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운삼, 1997). 교사나 또래와의 갈등관계는 대인관계의 지속적인 소외감을 일으키며, 학업문제는 부모님의 기대와 맞물려 청소년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살구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유미와 김득성(1998)은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자살기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장기적 스트레스 모델(long-term stress model)은 자살을 오랫동안 지속된 가족적,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결과로 본다(신민섭 외, 1991). 이 관점에서 청소년을 자살로 몰고 가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위험요인으로 학교환경이나 가족관계, 가족력, 및 개인적 요인들 및 누적된 생활사건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사건의 누적에는 건강이나 직업, 권력의 상실도 포함되지만, 청소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실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대중 매체를 통해 이상화한 연예인의 죽음 등을 들 수 있다(Ray & Johnson, 1983). 가족구조 변화의 동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의 이혼은 청소년의 자살미수와 관련이 있는 반면, 부모의 죽음은 성공한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Dorpat, Jackson & Ripley, 1965). 특히 단기간에 이런 주요한

스트레스를 여러 개 경험한 경우에 정서적, 인지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극히 높아진다(Feldman & Elliot, 1990).

이상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위험요인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부정적인 가족관계와 부적응의 가족사는 한창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청소년에게 자아 존중감의 손상과 희망 상실, 좌절감, 자기 증오심 등을 유발시켜 결국 심각한 무력감에 빠지게 하여 자살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 4. 우울증과 청소년 자살

우울증은 자살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 장애로,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살 청소년의 3/4이 자살 전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연구결과(신민섭 외, 1991에서 재인용) 단일요인으로서 우울증이 자살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울증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구성요인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한 기분, 미래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 요인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들이 자살구상을 더 자주 한다(Feldman & Elliot, 1990). Topol과 Reznikoff(1982)는 정신과에서 치료 중인 자살을 시도했던 경력이 있는 청소년 30명과 역시 치료중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없는 청소년 34명,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자살 시도 경험도 없는 청소년 35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자살을 시도하였던 청소년들이 다른 두 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증의 주요 징후인 '무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다 내성적이며 공격적, 충동적, 또는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며,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가족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특히 자살 직전에 강렬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Feldman & Elliot, 1990). 또한 자살하는 청소년의 상당수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어, 정서장애를 비롯하여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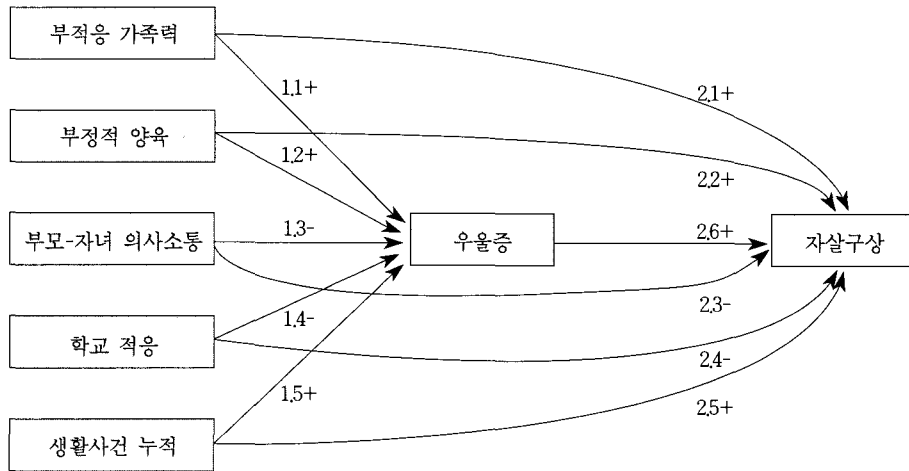
장애, 약물복용 등의 문제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증이 결합한 경우는 치명적으로 자살 행동과 깊은 연관성을 갖으며,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무력감(hopelessness)을 느끼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자살 위험군에 속한다(Feldman & Elliot, 1990).

그러나 우울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살구상을 하는 학생이 20% 이상 보고된 사실은(이민창 외, 1992),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이 없더라도 자살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수준의 다양한 원인들이 검토되어 왔으며, 우울증은 자살구상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 부적응 가족력, 학교적응, 누적된 생활사건 등의 변인이 우울증과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III. 가설모델

- 1.1 과거 부적응 가족력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2 과거 어린시절의 부정적 양육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3 현재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4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5 최근에 누적된 생활사건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1 과거 부적응 가족력은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2 과거 어린시절의 부정적 양육경험은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3 현재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번호는 가설을 의미하며, +/- 기호는 변인간 관계를 의미함.

<그림 1> 가설적 인과모델

- 24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5 최근에 누적된 생활사건은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6 청소년의 우울증은 그들의 자살구상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실시할 것을 정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 보장을 약속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변인, 학교적응 및 생활사건의 측정

가족변인으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 부적응 가족력을 고찰하였다. 우선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측정을 위해 Barnes와 Olson (1982)이 고안한 20개 문항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사용하였다(Olson et al, 1992, 재인용). 이 척도는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어머니는 늘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아버지와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가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점수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를 더한 것으로 부모님과의 총체적 의사소통을 측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635명의 남녀 학생들로, 이들은 서울시내와 수도권 신도시 및 부산 시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1, 2 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임의로 선정된 서울의 2개 학교, 수도권 신도시의 2개 학교, 부산 시내의 2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서면으로 연구동기를 밝히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루어졌다. 담임 선생님의 합의 하에 임의로 설문조사를

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0점-2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의사 소통이 원활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의 경우 .88, 어머니의 경우 .89로 나타났다.

어린시절 경험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1984)가 고안하고 Donovan(1991)이 개작한 12문항의 부모 수용-거부 설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form, PARQ)를 사용하였다. “나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하셨다.”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셨다” 등의 진술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7-12세의 입장으로 돌아가 각 문항의 진술이 사실이었던지, 사실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부적응 가족력(maladjustment family history)은 부모나 직계 친척 중에 자살, 정신질환, 알콜 또는 약물중독, 우울증, 가족학대 등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등의 8문항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가족력이 많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용철(1992)의 학교적응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교전반영역, 수업관계, 급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영역의 질문을 포함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타당도는  $\alpha=.83$ 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생활사건 누적은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생활사건의 빈도를 보는 것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McCubbin(1981)의 도구(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 Changes:이하 A-FILE이라 칭함)를 개작하여 사용하였다(Olson et al., 1992, 재인용). A-FILE은 50문항 척도로 응답자가 지난 6개월간 겪은 생활사건 유무를 종류별(예: “부모님이 새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원이 심각하게 아팠다” 등)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몇몇 항목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보완한 후 4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4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이 누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2) 우울증과 자살구상의 측정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최근의 우울한 기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욕이 없었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하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점-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84$ 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자살구상은 Carroll과 그 동료들이(1981) 고안한 도구(Suicide in Carroll Rating Scale for Depress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자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나에게 있어 죽음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등의 네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4-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구상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74$ 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성별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구상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들간의 인과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측정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경로분석은 중다회귀분석을 두차례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회귀식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을 종속 변인으로 5개의 독립변인들을 넣었고, 두 번째 회귀



식에는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울증을 포함한 6개의 독립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대해 각각 따로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15세에서 18세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43.6%, 여학생 56.4%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거주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63.5%, 부산지역이 36.5%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 기혼(91.0%)으로 나타났으나, 사별(3.6%), 별거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N (%)	
성별	남학생	277(43.6)	
	여학생	358(56.4)	
거주지역	서울(수도권 포함)	403(63.5)	
	부산	232(36.5)	
학년	1학년	338(53.2)	
	2학년	297(46.8)	
부모님의 결혼상태	기혼	578(91.0)	
	사별	23( 3.6)	
	별거	3( 0.5)	
	이혼	15( 2.4)	
	재혼	10( 1.6)	
	무응답	6( 0.9)	
부모님의 직업	부(N=595)	모(N=611)	
	무직/주부	27( 4.3)	420(66.1)
	단순노무직	3( 0.5)	5( 0.8)
	기능원, 설비	15( 2.4)	4( 0.6)
	농업어업	6( 0.9)	2( 0.3)
	서비스 판매	253(39.8)	127(20.0)
	사무직	242(38.1)	49( 7.7)
	전문가	14( 2.2)	.
	고위임원/관리직	18( 2.8)	1( 0.2)
	전문직	17( 2.7)	3( 0.5)
	무응답	40( 6.3)	24( 3.8)

(0.5%), 이혼(2.4%), 재혼(1.6%)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보고되었다. 부모의 직업은 9가지 유형 중 아버지의 경우 서비스/판매직(39.8%)과 사무직(38.1%)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주부(66.1%)와 서비스/판매직(20.0%)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 2. 성별에 따른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구상 결과

〈표 2〉는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구상 정도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이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우울증의 경우 여자청소년이(M=41.88, sd=9.89) 남자청소년보다(M=39.36, sd=8.84)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F=3.985, P<.05). 이는 여학생의 우울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박금순, 1995; 류기영, 1999). 자살구상의 정도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0.538, p<.001). 이러한 결과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 충동을 더 느끼고 자살 구상의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운삼, 1997).

#### 3.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 구상에 대한 경로분석

##### 1) 변인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경로분석에 앞서 사용될 주요변인들에 대해,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변인간의 Pearson's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5개의 독립변인간 상관계수의 값이 .50을 넘지 않음

〈표 2〉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구상 정도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F
우울증	남	39.36	8.84	3.985*
	여	41.88	9.89	
자살구상	남	7.61	2.37	10.538***
	여	8.24	2.60	

\*p<.05    \*\*p<.01    \*\*\*p<.001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남자청소년	1	2	3	4	5	6	7
1. 부적응 가족력	1.00						
2. 생활사건 누적	.299**	1.00					
3. 부정적 양육경험	.186**	.19**	1.00				
4. 부모-자녀 의사소통	-.023	-.285**	-.552**	1.00			
5. 학교적응	-.019	-.137*	-.237**	.336**	1.00		
6. 우울증	.046	.242**	.313**	-.297**	-.382**	1.00	
7. 자살구상	.128*	.253**	.391**	-.374**	-.380**	.504**	1.00
평균	.42	6.70	4.52	125.1	74.3	39.3	7.58
표준편차	.77	4.26	4.30	19.97	10.69	8.81	2.28
여자청소년	1	2	3	4	5	6	7
1. 부적응 가족력	1.00						
2. 생활사건 누적	.352**	1.00					
3. 부정적 양육경험	.178**	.302**	1.00				
4. 부모-자녀 의사소통	-.122*	-.231**	-.516**	1.00			
5. 학교적응	.010	-.175*	-.283**	.296**	1.00		
6. 우울증	.106*	.419**	.308**	-.303**	-.355**	1.00	
7. 자살구상	.147**	.259**	.382**	-.328**	-.391**	.513**	1.00
평균	.56	6.69	3.90	131.97	73.57	41.86	8.26
표준편차	.96	3.98	4.26	19.15	10.85	9.93	2.59

\* p&lt;.05 \*\* p&lt;.01

므로 경로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3〉 참조). 또한 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 2) 성별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

〈표 2〉의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우울증과 자살구상의 정도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대해 따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남자 청소년에 대한 경로분석

남자 청소년의 경우 〈표 4〉에서 보듯이, 총 5개의 독립변인들은 청소년 우울증의 변량에 대해 약 22%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회귀식의 5개 독립변인들 중에서 세 변인, 즉 학교적응( $\beta = -.291$ ,  $p < .001$ ), 어린시절의 부정적 양육경험( $\beta = .165$ ,  $p < .05$ ), 생활사건 누적( $\beta = .135$ ,  $p < .05$ )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학교적

응으로,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시절 부정적 양육경험이 높을수록, 생활사건이 많이 누적될수록 우울증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가설 12, 14, 15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11과 13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예측하는 두 번째 회귀식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6개 독립변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청소년 자살구상의 변량에 대해 약 35%를 설명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로는, 우울증( $\beta = .335$ ,  $p < .001$ ), 학교적응( $\beta = -.156$ ,  $p < .01$ ), 부정적 양육경험( $\beta = .155$ ,  $p < .05$ ), 부모-자녀 의사소통( $\beta = -.125$ ,  $p < .05$ ), 등의 네 변수들이었다.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현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22, 23, 24, 26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21과 25는 지지되지 않았다.

(2) 여자 청소년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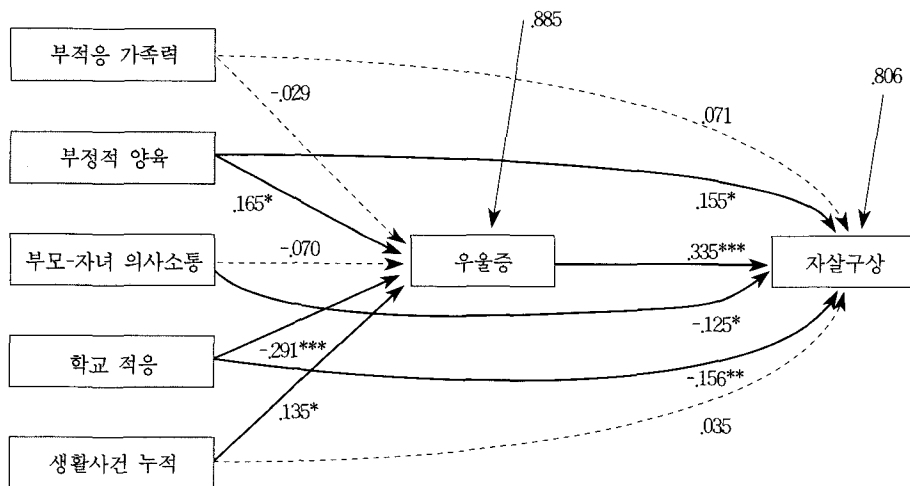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첫 번째 회귀식에 입력된 5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28%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들로, 생활사건 누적 ( $\beta=.347, p<.001$ ), 학교적응( $\beta=-.231, p<.001$ ), 부모-자녀 의사소통( $\beta=-.117, p<.05$ ), 등으로 드러났다. 여

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생활사건 누적으로, 최근의 생활사건 누적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우울증이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 1.4, 1.5는 지지되었지만, 1.1와 1.2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4>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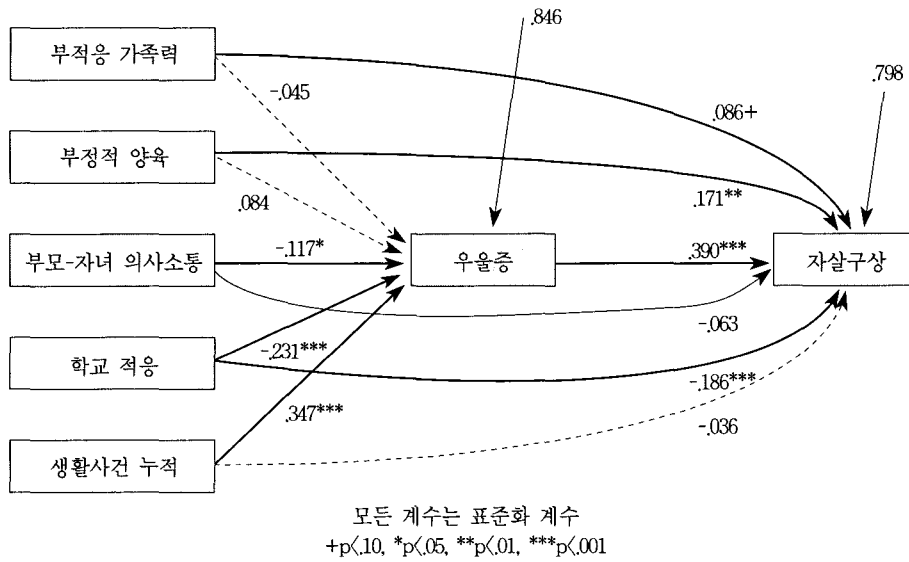
종속변인	남				여			
	우울증		자살구상		우울증		자살구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독립변인								
부적응 가족력	-.335	-.029	.209	.071	-.466	-.045	.232+	.086
부정적 양육경험	.337*	.165	.008*	.155	.196	.084	.104***	.171
부모-자녀 의사소통	-.031	-.070	-.014*	-.125	-.061*	-.117	-.009	-.063
학교적응	-.240***	-.291	-.033**	-.156	-.211***	-.231	-.044***	-.186
생활사건 누적	.280*	.135	.019	.035	.866***	.347	-.024	-.036
우울증			.087***	.335			.102***	.390
상수	57.652		7.841		59.089		8.017	
R <sup>2</sup>	.217		.351		.284		.363	
F	14.663***		23.834***		26.513***		31.708***	

+p<.10 \*p<.05 \*\*p<.01 \*\*\*p<.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그림 2> 남자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한 경로모델



<그림 3>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한 경로모형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의 변량에 대한 6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약 36%로 나타났다( $F=31.708, p<.001$ ). 6개 독립변인 중 4개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우울증( $\beta=.390, p<.001$ ) 부정적 양육 경험( $\beta=.171, p<.001$ ), 학교적응( $\beta=-.186, p<.001$ ), 부정적 가족력( $\beta=.086, p<.10$ ) 등이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우울증이였다. 우울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어린시절 부정적 양육경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적응 가족력이 많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2, 2.4, 2.6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2.3과 2.5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로모형에서 거의 모든 변인들이 직접적, 간접적 혹은 직,간접 효과 모두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델 다 청소년 자살구상 변량의 30% 이상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임을 보여주었다(<그림 2>와 <그림 3> 참조). 또한 두 모델에서 모두 우울증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드러나, 우울증이 자살구상의 선행요인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청소년의 자살 구상에 대한 우울증의 매개 효과

<표 5>에서 보듯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체인과 효과의 크기는 우울증( $\beta=.335$ )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한 우울증의 매개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경로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학교적응이다. 학교적응은 직접효과( $\beta=-.156$ )와 간접효과( $\beta=-.0975$ )의 영향이 모두 나타났으며 전체효과는  $\beta=-.254$ 로, 우울증에 의한 간접효과의 비율이 38%나 차지하였다. 부정적 양육경험의 전체인과효과는  $\beta=.210$ 으로 직접효과( $\beta=.155$ )와 간접효과( $\beta=.055$ )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우울증에 의한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 정도 나타났다. 특이한 결과는 생활사건 누적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지만, 우울증을 통한 간접효과( $\beta=.045$ )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표 5> 참조). 생활사건의 누적은 우울증을 통하여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미치는 간접 효과( $\beta=.045$ )가 직접 효과( $\beta=.035$ )보다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가 전체인과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6% 정도 된

〈표 5〉 청소년의 자살구상의 경로분석 인과효과에 대한 분해도표

독립변수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전체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부적응 가족력	--	--	--	.068	--	.086
부정적 양육경험	.210	.055(26%)	.155	.204	--	.171
부모-자녀 의사소통	-.149	--	-.125	-.109	-.046(42%)	--
학교적응	-.254	-.098(38%)	-.156	-.276	-.090(33%)	-.186
생활사건 누적	.080	.045(56%)	--	.099	.135(38%)	--
우울증	.335	--	.335	.390	--	.390

( ) : 전체효과에 대한 간접효과 비율

다. 즉, 생활사건의 누적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우울증을 매개로 자살구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을수록 자살구상을 높이는 직접 효과가 있으나( $\beta=-.125$ ),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전체 인과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부적응 가족력은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인 직접 또는 간접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은 변인이나, 이론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구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전체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은 우울증( $\beta=.390$ )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대해 우울증이 매개하는 역할이 가장 큰 변인은 학교적응으로 전체인과효과는  $\beta=-.276$ 이며, 직접효과( $\beta=-.186$ )와 간접효과( $\beta=-.090$ )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한편, 우울증의 매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우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beta=-.109$ )과 생활사건 누적( $\beta=.099$ )으로, 이 두 변인은 여자 청소년의 자살 구상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지만, 우울증에 대한 간접적 효과가 유의하므로(각  $\beta=-.046$ ,  $\beta=.135$ ), 전체적으로 우울증을 통하여 자살구상에 대한 전체 인과효과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여자 청소년의 자살 구상에 미치는 전체 효과 중에서 우울증을 통한 간접 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42% 정도이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사건 누적이 우울

증을 통한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의 3.8배이며, 이는 생활사건이 누적될수록 우울증을 증가시켜 결국 자살구상의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적응 가족력( $\beta=.068$ )과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 $\beta=.204$ )은 여자 청소년의 자살 구상에 직접적 영향(각  $\beta=.086$ ,  $\beta=.171$ )은 미치나, 우울증을 통한 간접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울증이 여러 변인과 청소년 자살구상의 매개변인으로서,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 자살구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행동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운삼, 1997; 류기영, 1999; 전영주, 이숙현, 2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및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린시절의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양육경험에 대한 지각과 학교적응이 현재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도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나,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의 영향력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약하였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이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과거의 부모와의 관계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인생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까지 지속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전영주, 1998). 한편, 청소년이 최근에 겪은 생활사건은 우울증을 매개로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사건의 누적에 많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는 이미리(1995)의 주장과 일치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현재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학교적응, 생활사건 누적은 우울증을 통해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구상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우울증을 통한 간접효과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이나 부적응 가족력 등, "과거"에 연관된 가족변인들은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살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살구상에 이르는 경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가족역동, 학교적응 및 누적된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여자 청소년이 우울증과 자살구상의 정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따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우울증은 자살구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으며, 학교적응 및 생활사건 등의 변인들과 자살구상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 드러났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학교적응은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적응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울증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향후의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류기영, 1999). 셋째, 누적된 생활사건은 직접적으로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증을 매개로 하여 자살구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에게만 드러난 점은, 첫째, 과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경험이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부모-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은 남자청소년의 우울증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자살구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대화가 총동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셋째,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과거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면, 여자 청소년에서는 첫째, 현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영향력 있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한 여학생일수록 우울증과 자살구상의 정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친구관계를, 여학생은 집안문제를 우선적인 고민으로 꼽았다는 조사(박금순, 1995)의 결과와 같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당면한 가족문제에 보다 민감함을 보여준다. 둘째, 부적응 가족력이나 과거의 부정적 양육경험은 여학생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살구상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와 관련된 가족변인이 우울증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여자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자 청소년과 다른 경로로 자살구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한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과거"가족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덜 받으나, 잠재된 "과거"가 다른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살구상을 유발하는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자살 구상은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기보다 정체감 발달과 더불어 흔히 일어나는 존재에 대한 회의로 표출되는 발달적 특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치명적인 자살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고 한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구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치이므로, 자살충동의 빈도와 구체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살 충동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병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증은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이며, 많은 청소년에게 만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받는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 유행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수준에서 우울증을 예방, 치료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학교는 사회와 개인을 연결하는 중간 매체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개개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들 1차집단에 개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상담실을 활성화하거나 “동료상담제도”와 같은 것을 운영한다면,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가족력이나 양육방식 요인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현재의 가족관계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가족의 과거”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는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태도의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생애적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계획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증이나 자살구상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은, 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춘기의 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단기 프로그램의 실행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신호를 놓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구상은 실제 자살행위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이며, 자살하는 이들의 3/4가 자살 전에 평소와 다른 경고 사인(의욕상실이나 행동

장애, 집중력 감소 등)을 보인다. 자살에 대해 언급하거나 유언, 또는 중요한 소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자살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다(Feldman & Elliot, 1990). 자살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와 선생님이 이러한 신호에 민감하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전화 등의 사회지원체계의 도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부산의 인문계 고등학교 1, 2 학년에 재학 중인 동질적 집단을 표집함으로써 오차를 줄인 장점도 있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변인(건강, 외모)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끝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한 점도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실제 자살의 동기와 심리적 메카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청소년의 자살미수나 성공한 자살청소년의 가족을 통한 심층면접과 관찰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2000).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 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8), 125-140.
- 김운삼(1997). 청소년 자살 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선 역(1997).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류기영(1999). *안산시 청소년들의 우울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금순(1995). *도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울증상과*

- 관련요인 조사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윤우상(1991). 소아 청소년 자살기사에 관한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05, 89-98.
- 이민창, 오미경, 최종태(1992).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우울증. *가정의학회지*, 13(12), 927-934.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영주, 이숙현(2000). 청소년 자살구상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7(1), 221-246.
- 전용철(1992). 중고등학생의 욕구수준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청소년백서(1997).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 요인,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최외선, 백양희, 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4), 27-40.
- 최태산(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urger, J. (1987). A case history of a troubled adolescent and his family. *Pointer*, 31, 46-51.
- Carroll, B. J., Feinberg, M., Smouse, P. E., Rawson, S. G., & Greden, J. F. (1981). The carroll rating scale for depression: I.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 205-209.
- Dorpat, T., Jackson, J., & Ripley, H. (1965). Broken homes and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213-216.
- Feldman, S. S., & Elliott, G. R. (1990). *At the threshold*.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R. C., Com, R., Hurt, S. W., Fibel, B., Schulick, J., & Sweiski, S. (1984). Family history of illness in the seriously suicidal adolescent: A life-cycl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390-397.
- Greuling, J. W., & DeBlassie, R. R. (1980). Adolescent suicide. *Adolescence*, 15, 589-601.
- Holinger, P. C., & Offer, D. (1981). Perspectives on suicide in adolescence.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2, 139-157.
- Kaplan, K. J., & Maidaver, M. (1993). Parental marital style and completed adolescent suicide. *Omega*, 27, 131-154.
- McClosky, H., & Schaar, J. H. (1965). Psychological dimensions of a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14-40.
- Murphy, G., & Wetzel, R. (1982). Family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suicide attempt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0, 86-90.
- Neiger, B. L., & Hopkins, R. W. (1988). Adolescent suicide: Character traits of high-risk teenagers. *Adolescence*, 23, 469-475.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92). *Family Inventories*. MN: Minnesota University.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y, L. Y., & Johnson, N. (1983). Adolescent suicid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131-135.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Univ. of Connecticu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 Stack, S. (1980). The effects of marital dissolution on suici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51-760.
- Strivers, C. (198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proneness. *Adolescence*, 23, 291-295.
- Tishler, C. L., & McKenry, P. C. (1982). Parental negative self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404-408.
- Topol, P., & Reznikoff, M. (1982). Perceived peer and family relationship, hopelessness and locus of control as factors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2, 141-150.
- Wodarski, J. S., & Harris, P.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Social Work*, 32, 477-484.
- Wright, L. S. (1985). Suicidal thoughts and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stress and 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undergraduates. *Adolescence*, 20, 575-580.